

구인후 재건에 사용한 비감각피판의 감각회복에 대한 임상적 평가와 조직학적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991년 4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시행한 구강 및 구인후 재건을 시행하였던 20례에서 피판부에 2-point discrimination test, 촉각 및 심부압각(light, deep touch sense), 통각(pain sense), 냉온감각(warm and cold sense) 검사를 시행하여 정상점막과 임상적인 비교평가를 하였고, 피판과 정상조직 변연부에서 조직을 채취하여 광학현미경적으로 관찰되었다.

피판부의 전체적인 감각이 떨어져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심부압각과 통각을 감지할 수 있었고 조직학적으로 피판부 각질층(keratin kayer)의 부분적 소실과 과립층(granular layer)의 감소, 모낭(hair follicle)의 소실 등이 관찰되었다.

13

### 양성 갑상선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갑상선 암에 대한 연구

정소환\* · 윤정환 · 제갈영중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갑상선 암은 전체 갑상선 종양의 약 5%를 차지하며 갑상선 종양의 대부분은 양성결절이다. 갑상선 양성종양과 암의 병인론적 연관은 분명치 않으나 동물실험과 병리소견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자간에 일부 공통의 발생기원을 가지며 특히 갑상선자극호르몬의 지속적 또는 간헐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목 적:** 저자들은 갑상선의 양성질환 및 결절이 있는 경우 갑상선 암의 공존빈도와 이러한 양성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갑상선암의 임상적, 병리학적 특징을 고찰하여 향후 갑상선암의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3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4년간 전남대학교 병원 일반외과에서 갑상선 암으로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받은 258명의 환자중 양성 갑상선질환과 갑상선암이 동반된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결 론:** 양성 갑상선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갑상선 암(30예)은 전체 갑상선 암(258예)의 11.6%를 차지했으며 남녀비는 1 : 9였고 연령비를 보면 50대가 10예(33.3%)로 가장 많았다. 양성질환과 동반된 갑상선 암의 조직학적 형태는 유두성 선암이 26예(86.6%)로 단연 많았으며 여포성 선암은 4예(13.3%)였다. 갑상선암의 크기는 잠재성암(<1.5cm)이 12예(40%), 1.5cm 이상은 18예(60%)이며 30예중 6예(20%)에서 임파선 전이가 확인되었다. 암과 동반된 양성질환을 보면 갑상선종이 13예(43.3%), 여포성 갑상선종 8예(26.6%), 하시모토씨병 6예(20%), 그레이브씨병 1예(3.3%)였고 2예(6.6%)에서 미만성 증대를 보였다.

**결 론:** 갑상선 양성질환과 동반하여 나타나는 갑상선암은 주로 유두상암이며 가장 중요한 동반양성질환은 갑상선종이었다. 따라서 다발성결절의 경우 영상학적으로 악성여부의 감별이 어려운 모든 결절에 대하여는 초음파등을 이용한 선택적 세포검사로써 감별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14

### 갑상선 유두상암종에서 조직형태와 종양침윤과의 관계

홍기환\* · 김중호 · 이동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병리학교실

유두상암종은 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른 암종에 비해 비교적 예후가 좋은 편이다. 이 유두상암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조직형태상을 보이는데, 이에 따라 예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즉 비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는 pure papillary형과 유두상과 여포상이 혼합된 mixed 형이 있으며, 공격적이며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는 tall cell, columnar cell, diffuse sclerosing 형이 있는데 특히 tall cell 형이다.

이에 본 이비인후과학교실에서 수술받고 조직병리학적으로 확진된 유두상암종 67례를 대상으로 수술소견상 갑상선 이외의 주위조직에 침범이 없었던 52례와 상

기도와 식도 등 갑상선 주위조직으로의 침윤을 보인 15례의 조직을 후향적으로 재분석하여 조직형태상과 종양의 침윤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주위조직 침범이 없었던 52례중 3례에서 tall cell형을 보였으며, 갑상선이외의 주위조직에 침범을 보인 15례중에서는 pure papillary형과 mixed형이 각각 6례와 7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오직 2례에서 tall cell형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갑상선 유두상암종의 예후는 병리조직학적 형태와는 연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환자의 연령이나 종양의 크기 및 침범정도, 원격전이 등 다른 예후인자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하고 있으나 이 중 1예는 1개월전 조직생검 후 수술시행 없이 저용량의 adriamycin과 Hyperfractionated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다. 근치수술후 저용량의 adriamycin 및 Hyperfractionated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6예 중 1예는 수술후 16개월인 현재 생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5예는 평균생존기간이 4.8개월로 근치목적 치료를 받지 못한 22예의 평균생존기간은 2.6개월이었다. 대부분의 미분화 갑상선이 불량한 예후를 보였다. 조기에 발견된 경우는 모든 치료방법을 동원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15

### 미분화 갑상선암의 치료

정웅운\* · 이미경<sup>1)</sup> · 박정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병리학교실<sup>1)</sup>

전체 갑상선암의 5~10%를 차지하는 미분화 갑상선암은 어떤 치료를 적용하더라도 수개월 내에 사망하는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암종의 하나이다. 최근 20년간 경험한 미분화 갑상선암 29예를 후향적 분석하여 진단 및 치료상의 문제점을 알아냄으로써 적절한 치료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77년 1월부터 1997년 9월까지 미분화암으로 치료를 받은 29예에 대한 임상조건, 병리조직학적 소견, 치료방법 및 치료성적을 조사분석하였다. 남녀비는 1 : 2.6으로 각각 8명, 21명이었으며 진단시 평균연령은 62.4세(23~83세)이었다. 내원시 전 예가 급격히 성장하는 경부종괴를 호소하였고, 초진시 종괴의 평균직경 8.2cm(2~15cm)이었다. 병변이 경부에 국한된 경우는 15예이었으며 나머지 14예는 폐, 골, 종격동으로의 전이가 있었다. 29예 중 9예에서는 조직생검만을 시행하였고, 근치적 목적의 수술은 7예에서만 있었다. 근치수술후 저용량의 adriamycin과 hyperfractionated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경우는 단지 6예이었다. 29예 중 27예가 사망하였고 이들의 평균 생존기간은 3.1개월(1~11개월)이었으며, 현재 2예만이 생존

## 16

### 갑상선 수술 시의 성대마비의 처치

최홍식\* · 김세현 · 김광문 · 홍원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음성언어의학연구소

갑상선 종양으로 인하여 갑상선절제술을 행한 때에 환자가 이미 악성종양의 침윤으로 인한 성대마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간혹 암수술 시에 마비된 성대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음성수술(phonosurgery)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수술전 성대의 움직임이 정상인 환자의 갑상선종양 수술 시에 실수로 반회신경이 절단된 경우에도 간혹 수술 후의 목소리가 많이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 차원으로 음성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저자들은 양성종양 제거시에 발생된 의인성(iatrogenic) 반회후두신경 절단에 2례에 대한 신경단단문합술+type I thyroplasty의 술후 경과 보고와, 갑상선암에 의한 편측 성대마비에 대하여 술전 근전도검사에 근거한 type I thyroplasty 실시 2례, arytenoid adduction+type I thyroplasty 2례에 대한 술전, 술후의 음성 변화를 보고하고자 한다. 또한, 갑상선암의 침윤에 의하여 발생된 양측 성대마비 1례에 대한 수술중 lasser arytenoidectomy에 대한 경과도 보고하고자 한다.